



사진 왼쪽부터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김광빈 동명아동복지센터 원장, 정몽준 이사장, 허정무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

정몽준 이사장, 설 맞아 아동복지시설 방문

아산재단 정몽준 이사장은 지난 2월 9일 설을 맞아 허정무 대전하나시티즌 축구단 이사장,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과 함께 서울 관악구 동명아동복지센터를 방문, 축구공과 과일 등 선물을 전달하고 아동들을 격려했다.

정몽준 이사장 일행은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아동들이 활동하고 있는 컴퓨터 실과 세미나실 등을 밖에서 살펴본 뒤 선물을 전달했다.

동명아동복지센터의 김연희 사무국장은 2020년 아산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28년간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가족해체로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들의 올바른 성장에 기여한 공로로 아산상 복지실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나누는 행복 | SOS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감사편지

간암 투병 중 찾아온 희망

안녕하세요. 분당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김소영입니다.

먼저 병원비를 지원해주신 아산재단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뭘 수는 없지만 편지를 통해서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던 저희 집은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지면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어린 아들,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까지. 저는 뇌병변 진단을 받은 남편을 대신해 가장 아닌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건강은 점차 나빠졌고, 얹친 데 덮친 격으로 2년 전에는 간경화로 인한 간암까지 발병했습니다. 당시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다시 악화되었고, 최근 복강경으로 암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 경과는 좋았지만 더 큰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병원비 문제였습니다. 많은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해야하나 고민하던 차에, 병원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아산재단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한 줄기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기쁘고 반가운 마음에 아팠던 것이 다 나은 것 같았습니다.

기댈 곳이 없던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신 아산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가까이에서 모든 일에 앞장서주신 사회복지사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제가 받은 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